

무등경기장은 외야수의 지옥



울 KIA 채종범·이용규 이어 두산 이종욱 등 부상자 속출 액운쫓기 소금까지 뿌렸지만... '부상괴담' 나돌아 경계령

벌써 세 번째다. KIA 타이거즈의 채종범, 이용규에 이어 두산 베어스 이종욱마저 2일 경기도중 부상으로 실려 나오면서 올 시즌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중견수들의 '지옥'이 되고 있다.

2일 경기전부터 덕아웃은 상승생수였다. 잔뜩 흐린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자 선수들은 경기전부터 "웬지 조짐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날씨 탓에 경기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부상이 발생한 것이다.

KIA와 두산이 3-3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던 8회초, 김종국의 타구를 쫓던 중견수 이종욱과 2루수 김재호가 충돌했다. 김재호는 이내 글러브를 들어올려 아웃임을 알렸

나, 내야쪽으로 달려 나오던 이종욱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재호와의 충돌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에 목덜미가 찢기면서 많은 출혈이 있었던 이종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진을 받았다.

턱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종욱은 5일 수술을 앞두고 있어 시즌 막바지이나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3일 경기전 덕아웃에서는 역시 이종욱의 부상이 주요 관심사였다.

양팀의 선수들은 어제 상황에 대해 얘기하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다. 자연히 올 시즌 무등경기장의 '부상 괴담'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왔다.

시작은 KIA 채종범이었다.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가 열린 3월26일, 이날도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2-0으로 앞서던 4회 중견수로 출전한 채종범이 두산 최승환의 외야 플레이를 처리한 뒤 곧바로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다.

외야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고, 공을 쫓던 채종범이 발이 꼬이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틀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던 채종범은 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결국 시즌을 접어야 했다. 지난주에야 겨우 발목을 벗어던진 채종범은 분당에 있는 병원 재활센터에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다음은 WBC의 스타 이용규였다.

4월7일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이용규가 정근우의 외야 타구를 쫓다 펜스와 충돌하면서 쓰러졌다. 복숭아뼈 골절을 당한 이용규는 수술 후 아직 재활중이다. 막 러닝을 시작한 이용규는 오는 7월을 복귀 시점으로 잡고 있다.

채종범에 이어 이용규마저 부상으로 쓰러진 날 최고참 이종범의 주도로 외야에 액운을 쫓기 위한 소금이 뿌려졌지만, 그 효험은 채 두 달을 넘기지 못했다.

부슬비가 지나갔던 지난달 20일에는 LG 트윈스의 포수 김정민이 3루를 돌다 발을 헛디디면서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을 마감하는 등 사고가 속출하면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부상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3월 두산과 시범경기에서 부상당한 채종범.



지난 4월7일 SK전에서 펜스에 부딪혀 발목을 다친 이용규.



지난 2일 수비중 팀 동료와 부딪혀 얼굴을 다친 두산 이종욱.

KBO, 프로야구발전 실행위원회 출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야구발전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유영구 KBO 총재는 3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프라 구축, 마케팅, 미디어 관계 등 KBO 인력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게 됐다"며 야구발전 실행위원회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인프라 ▲마케팅 ▲미디어 ▲제도·운영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야구발전실행위원회는 위원장에 허구연 MBC 해설위원이 위촉했으며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두바이 알와슬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한국 대 오만 경기에서 배기종이 상대 수비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있다.

“UAE전 대비 맞춤형 고사 베스트 11 윤곽 잡았다”

허정무 감독 일문일답

허정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3일(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알 와슬 주경기장에서 열린 오만과 평가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대체로 무난하게 경기를 치렀지만 속도감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경기는 오는 7일 열린 UAE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6차전 원정경기를 대비한 맞춤형 모의고사였다.

허정무 감독은 “UAE와 경기를 앞두고 남은 기간 체력을 더 끌어올리고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 감독과 일문일답.

-경기에 대한 평가는.
▲신영록 한 명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점점했다. 현재 컨디션을 알 수 있었고 6일 경기하는데 윤곽이 잡혔다.

-박주영 프리킥 아쉬웠는데.
▲좀 더 날카로워 골이 돼야 했는데 너무 골키퍼를 의식해 귀퉁이로 간 게 아쉽다. 세 번 다 킥이 좋았지만 마지막은 골키퍼 방향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꺾었다.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다 동료에게 넘겨주는 것도 생각해야 할 점이다.

-세트피스 상황은 어땠나.
▲상당히 좋은 기회 있었고 상대 골키퍼가 선방하기도 했다.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초반 몇 차례 킥은 안 좋았다.

-적응 과정은 어떤가.
▲여기 환경에 완전히 적응 안 됐다. 완벽하게 적응해서 6일 경기에 나서야 한다. 오늘은 무난하긴 했지만 속도감이 떨어졌다. 체력이 소모된 탓이다. 좀 더 적응해 보다 나은 모습 보여야 한다.

-무더위로 힘들지는 않았나.
▲무더위 적응에 대해 더 체크해야 한다. 몸직임이 둔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양동현과 유병수 새로 투입된 공격수는 어떤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할 선수다.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점은.
▲(특점에서) 마무리하는 훈련하고 세트피스도 가다듬는 등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상대팀에 대비한 전략도 세울 생각이다.

-오늘 경기에서 성과는 있었나.
▲좋은 점도 있었고 차분히 정리해서 6일 경기에 대비하겠다.

/연합뉴스



“골맛 못 봤지만... 젊으면 OK” 허정무호 오만 평가전 결정력 부족... 무승부

축구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UAE)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을 앞두고 치른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젊은 피'의 활약을 기대케 한 판이었다.

축구 대표팀은 3일 오전 UAE 두바이 알와슬 주경기장에서 치러진 UAE를 겨냥한 오만과 평가전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0-0 득점 없이 비겼다.

4-4-2 전술을 내세운 허정무호의 '젊은 피' 박주영(24·모나코)과 기성용(20·서울)이 전 후반에 각각 프리킥과 페널티킥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20대 초, 중반의 대표팀 새내기들이 페기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다.

사실 반 경기씩 소화했다고는 해도 늦게 대표팀에 합류한 일부 태극전사들이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황에서 쉽지 30도를 훌쩍 넘긴 무더위 때문에 선수들은 제 기량을 보여주기 어려웠다. 또 체력적 부담 때문에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도 원활하지 못했다.

허정무 감독도 “무난하게 했지만 속도감이 떨어졌다. 체력 소모가 큰 탓”이라면서 “아직 적응이 안됐다. 남은 기간 적응해 UAE와의 경기에서는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를 시인했다. 하지만 후반에 최전방 투톱으로 나선 유병수(21·인천)와 양동현(23·부산)은 성인 대표팀에 처음 발탁되고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특히 유병수가 후반에 페기 넘치는 플레이로 팀에 활약을 불어넣어 준 점은 돋보였다. 유병수는 후반 27분 기성용의 왼쪽 코너킥을 받아 골 지역 정면에서 상대 수비진 사이를 뚫고 헤딩슛을 때린 게 상대 골키퍼의 손끝에 걸렸다. 유병수는 또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도 보였다.

허 감독은 유병수와 양동현의 플레이를 보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할 선수들”이라고 일단 합격점을 주는 데 주저했지만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또 후반 39분 박지성과 교체투입된 배기종(25·수원)도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 수비수 두 명을 달고 단독 드리블,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활약도 눈에 띄었고 이강진(23·부산) 역시 포지션은 수비수였지만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연합뉴스

이 첫 공식 경기 맞대결이었다.

이날 패배로 레몽 도메네크 프랑스 감독은 최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부진과 함께 더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프랑스는 유럽 예선 7조에서 3승1무1패로 세르비아(4승1패)에 승점 2점이 뒤진 2위에 머물고 있다.

한편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홈으로 불러들여 벌인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프랑스와 터키는 6일 프랑스 리옹에서 평가전을 갖는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佛 제압 평가전서 1-0 승

나이지리아가 프랑스와 축구 평가전에서 1-0으로 이겼다.

나이지리아는 3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생테티엔에서 열린 프랑스와 평가전에서 전반 32분에 터진 조지프 아크파라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프랑스와 나이지리아는 이번